



신성장산업 주간모니터

제약/바이오/헬스케어: 이달미, 3773-9552



제약/바이오 CDMO업체들의 성장은 계속 된다

-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그 동안 수혜를 받았던 제약/바이오 업체들의センチ 약화가 지속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글로벌 CDMO 업체들의 성장과 대규모 투자는 계속 이어질 전망.
-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바이오 CDMO 시장은 2020년 113억달러에서 2026년 203억달러로 연평균 10.1%의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힘.
- 2020년 기준 글로벌 CDMO업체는 100여개가 넘고 그 중 상위업체인 론자, 삼성바이오로직스, 캐털런트, 베링거인겔하임, 써모피셔가 전체 시장의 59.4%를 차지.
- 주요 업체들은 현재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데 론자는 스위스와 미국에 2개의 포유류 약물 물질 제조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9억3,500만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함.
- 캐털런트의 경우 작년 이탈리아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며 생물학적제제 약물 제조시설 추가 계획을 발표. 또한 미국에는 제조 세트수를 5개로 늘렸으며 현재 cGMP 규모의 2배에 달함.
- 국내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올해 4공장 완공, 향후 5,6공장 증설이 예상되면서 글로벌 CDMO 업체들의 장기적인 성장은 지속될 전망.

글로벌 주요 CDMO 기업들

북미	유럽	아시아퍼시픽	기타 지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Thermo Fisher • Catalent • AMRI • KBI biopharma • Emergent Solutions • Cognate Bioservices • Abbvie CMO • Boehringer Ingelheim • Lonza • AGC Biologics • Baxter Biopharma • Pfizer CentreOne • Goodwin Biotech • Biocentric* • Abzena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Rentschler Biopharma • Recipharm • Lonza • Ology Bioservices • IDT Biologika • Thermo Fisher • Fujifilm Diosynth • Catalent • BMS • AGC Biologics • Abbvie CMO • Vetter • Celonic • Oxford Biomedica • KBI Biopharma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Samsung Biologics • WuXi Biologics • Celltrion • Kemwell Biopharma • JSR Life Sciences • Fujifilm Diosynth • JHL Biotech • Nikkon • Hitachi Chemical • Advanced Therapeutics • AGC Biologics • Cell Therapies • Biocon Biologics • Asymchem • Mabplex • VIVA Biotech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Nanolek • Atvio Biotech • Minapharm /Probiogen



Compliance Notice

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
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나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..
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

